

서희스타힐스에서 '내집마련 꿈' 실현

교육·생활 인프라 풍부 동군산 핵심입지 초기 금융비용 없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



동군산 서희스타힐스 조감도

한·중 FTA 최대 수혜지역인 군산에 호재가 몰리면서 '군산 동서 균형 개발사업'이 열기를 더하고 있다. 올해 들어 정부의 새만금 국제공항 타당성 검토와 LG의 스마트 바이오 파크 개발 사업 등 다양한 개발의 밑그림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재 동군산 지역의 페이퍼코리아 이전으로 디오션시티 조성, 제2정수장 부지 매각 등 본격적인 지역 균형개발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13년 노인종합복지관 완공을 시작으로 2014년 완공한 동군산 철타지화, 2015년 군장산단 연안도로, 2016년 동부권 도서관 건립, 2017년 페이퍼코리아 이전, 2018년 익산대야 복사전철, 신역세권 택지개발 등이다.

현재 페이퍼코리아와 제2정수장 이전 및 매각이 완료되면서 조촌동 지역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다.

페이퍼코리아 이전으로 조성예정인 디오션시티는 6,400여 세대, 1만 7,000여 명의 거주 계획, 최근 롯데 아울렛과 전북대 군산병원이 입점과 건립을 각각 확정했다.

이밖에도 제2정수장 부지에 조성되는 동군산 서희스타힐스는 단일 브랜드 1016세대 대단지로 선호도 높은 중수형 59㎡, 75㎡, 84㎡ 타입으로 구성된다. 기존 도심권인 수송동과 군산역세권지구 및 서천장항을 연결하는 중간입지이며, 항구 도시인 군산시의 내륙권 진출 관문 지역으로 물류와 인구의 집중이 예상된다.

지난 6월 16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완료한 동군산 지역주택조합(1단지)은 초기 금융 비용이 들지 않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마련이 가능하고, 민특법 개선으로 일반인들도 임대를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민간임대(2단지)도 양

도 가능해 동군산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보인다.

조합아파트 NO.1 서희건설이 시공을 맡아 브랜드 노하우를 선보인다. 전 세대에 채광 및 공간활용도가 높은 4Bay 구조 및 알파룸, 대형팬트리 수납특화, 뛰어난 공간설계를 적용해 입주자의 편의를 높였다.

이밖에도 교육·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도보권 경포초등학교와 군산제일중·고, 군산동초, 진포중 등 명문 학교와 학원가로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이마트, 군산시

청, 동군산병원, 롯데시네마, CGV 등도 인접해 동군산을 대표하는 일등급 생활이 펼쳐지는 동군산 핵심입지로 관심을 받고 있다.

동군산 서희스타힐스 조합원 자격은 군산시·전북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나 85㎡ 이하 주택1채 소유 세대주면 청약통장이나 청약순위와는 상관없이 거주가 가능하다.

동군산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주택홍보관은 전북 군산시 미장동 57-17에 위치해 있다. /군산=장 현 기자

군산시간여행축제 개막 20여일 앞

'플래시몹 서포터즈' 신바람 나는 공연으로 전국 홍보

2017 군산시간여행축제 개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축제홍보를 위해 시민들로 구성된 '시간여행축제 플래시몹 서포터즈' 30명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홍보에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19일 첫 홍보활동에 나선 플래시몹 서포터즈는 서울(서울역, 광화문, 중앙박물관)에서 1930년대 분위기의 흥겨운 가락과 춤을 주제로 신바람 나는 플래시몹 공연을 선보이며 군산시간여행축제를 열정적으로 홍보했다.

군산시간여행축제 플래시몹 서포터즈는 지난 7월에 시민공모를 통해 모집된 50여명 중 여섯 차례에 걸친 사전교육을 이수 한 22명으로 최종 구성됐으며, 지난 12일에는 군산 초원사진

관에서 최종 연습을 진행해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플래시몹 서포터즈는 서울에 이어 오는 26일에는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홍보를 진행하며 내달 9일까지 전국 각지의 대도시와 전북도 권역으로 찾아가는 플래시몹 홍보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편 오는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개최되는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시민들의 오감을 채워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으며, 개막식 당일인 15일에는 시민이 함께하는 시간여행 퍼레이드와 초대가수 김태우의 축하공연 등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북서부보훈지청은 전국 대학생 봉사단 38명과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 부안과 고창에서 재가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보훈가족 행복한 여름나기 '팔걸어'

전국 대학생 봉사단, 벽화그리기·대청소 등 봉사활동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우실)은 보비스(찾아가는 보훈복지서비스) 선포 10주년을 맞이해 정담회(전국 대학생 봉사단) 38명과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 부안과 고창에서 재가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해 봉사활동을 갖는다고 밝혔다.

정담회(회장 신정현, 심신여대)는 첫날 부안지역 현충시설인 김낙선의사 추모공원 및 충훈불발탑을 방문해 참배 및 정화활동을 실시했으며 남은 일정 동안 재가대상자 및 보훈 가정을 방문해 담장 벽화그리기, 대청소, 말벗 등 보훈가족의 행복한 여름나기를 도와줄 예정이다.

이우실 지청장은 "국가보훈처의 찾아가는 보훈복지서비스인 보비스(BOVIS)

선포 1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에 젊은이들이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봉사활동을 함에 큰 기쁨을 느낀다"고 전했다.

신정현 정담회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무더위와 폭우가 계속되는 날씨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유공자분들이 조국을 위해 피땀 흘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분들을 위해 정성껏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현장과 시민 중심의 활동에 역점을 두고 따뜻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우리지역 계란, 안심하고 드세요"

군산 산란계 농장 8곳 살충제 성분검사 적합 판정

전국적인 '살충제 계란' 파동이 겹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 산란계 농장에서 유통되는 계란들의 검사결과가 적합판정을 받았다.

17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시 산란계 농장 8곳에 대해 진행된 살충제 성분검사 전수조사 결과 전체 농장 모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전북 동물위생시험소 및 군산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된 이번 검사결과에 따라 곧바로 산란계 농장에 증명서 발급하고 계란유통을 허용했으며,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란계 농장에 대해 문제가 된 살충제 사용금지 및 동물 의약품 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했다.

또한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관내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21개소에 대해 긴급 일제 방문 점검을 실시해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계란 판매 및 위생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생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검사 결과 군산은 안전한 곳으로 판정된 만큼 지역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 /군산=장 현 기자

익산시 살충제 계란 안전지대 사수... 농장 전수검사 이상 무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익산시는 관내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에 들어갔다.

관내 산란계 농가는 6농가(149천수)로 지난 16일 살충제 사용여부 전수조사 결과 4농가는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2농가는 모래목욕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고, 농산물 품질관리원

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판정이 나와 인체에 이상이 없는 계란을 생산했다.

또한 식용란 수집판매업소(15개소)는 도내 산란계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을 수집해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도내 모든 산란계 농가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안전한

계란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관내 산란계 농가에게 살충제 사용 시 살충제 용량·용법 준수, 산란계에게 약품이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한 계사에 약제를 사용할 때에는 3~4일간 사용 후 다른 약제로 교체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가 및 식용란 수집판매업소에 대해 홍보 및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서 중앙지구대 월례회의

익산경찰서(서장 이상주) 중앙지구대(대장 송현섭)는 지난 17일 생활안전협의회회장 등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홍보 및 설문조사와 신규 회원 5명 위촉(임경운, 나영선, 손성래, 우희진, 최일웅)하는 등 월례회의를 열었다.

이날 송현섭 대장은 주민이 요청하는 지점·시간 위주로 지역경찰 순찰체계를 전환, 지역주민을 보다 세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치안서비스 강화하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에 대해 홍보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고, 탄력순찰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수렴을 했다.

또한 송현섭 중앙지구대장은 신규회원 5명을 위촉하며 "신규회원의 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 민·경 협력체제 유지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전한 중앙 관내를 만들기 위해 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응급 구호품 세트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